

2025년 설 명절 예배순서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 위에 번성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려봅시다.

원스틴 처질은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이 궁지에 몰리고 만사가 어긋난 것 같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고 때가 되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높은 산은 쉽게 정복되지 않습니다. 먼 정상도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정상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음으로 복을 받고 번성케 됩시다.

찬 송 ----- 28장(통 28장) ----- 다 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50장(통 248장) ----- 다 같이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 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 도 ----- 말 은 이

성경봉독 ----- 히브리서 6:11~15 ----- 다 같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 씀 -----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 말 은 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복에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십니다. 현재의 복에 미래의 복을 더해 주십니

다. 땅의 복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면서 그 건강으로 더 귀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때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은혜도 축복도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도를 내면 어떻게 하나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으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